호매칼럼

겨울편지

김 명 화
/교육학박사 · 동화작가

'친구야 네가 사는 곳에도 눈이 내리니?/ 산 위에 바다 위에 장독대 위에/ 하얗게 내려 쌓이는 눈만큼이나/ 너를 향한 그리움이 눈사람 되어 눈 오는 날/ 눈처럼 부드러운 네 목소리가 조용히 내리는 것만 같아/ 눈처럼 깨끗한 네 마음이 하얀 눈송이로 날리는 것만 같아 나는 자꾸만 네 이름을 불러본다.' 이해인 수녀의 '겨울편지' 시 한 부분을 읽어본다. 이해인 수녀의 시를 읽으며 세 편의 겨울편지를 써본다.

첫 번째 편지는 귤을 보내온 교수님께 편지를 남긴다. "귤은 잘 받았습니다. 올해 귤은 작년 귤보다 더 알이 굵고 달콤한 맛을 담고 있었습니다. 남쪽 햇살을 듬뿍 머금은 귤을 한입 베어먹은 순간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신 정성을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친환경으로 귤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삼년 전부터 만들어 두었던 퇴비 거름을 많이 주었더니 알도 굵고 단맛이 더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햇살을 가득 담은 귤을 이웃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귤을 나누어 주며 제주에서 보내온 친환경 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해 정성껏 농사를 지어 나눔의 사랑을 베풀어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편지를 마친다.

두 번째 편지는 김치를 보내온 벗에게 편지를 쓴다. "친구야 네가 사는 그곳에도 겨울로 가득 차 있지. 보내준 김치는 잘 먹고 있단다. 올 고추 농사가 잘 안되어 김치를 담글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집까지 김치가 오게 되었다니 고마운 마음이 앞선다. 9월에 배추를 심고 아침마다 벌레를 잡으며 정성을 다해 키운 배추가 튼실하게 컸다고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어 배추를 같이 키우는 줄 알았단다. 올해는 김치를 시원하게 담기 위해 생새우를 더 많이 넣어야겠다며 새우를 사러 바다까지 다녀왔다지. 멸치 액도 넣고 올해는 내가 좋아하는 무를 김치 사이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뻤단다. 올 김치는 그래서인지 시원한 맛이 입안에 감돌았어. 김치를 입안 가득 넣고 너를 생각했단다. 입안에 김치가 가득 찬 것만큼 감사한 마음이 먼저 찼지. 텃밭에 배추를 조금 남겨두었다고 했어. 그리고 볏짚을 배추 위에 올려놓았다고 했어. 겨울 동안 배추가 잘 견뎌 봄동 나물을 먹을 생각하니 벌써 2월이 기다려진다."

세 번째 편지는 유자차를 보내준 벗에게 쓴 편지다. 세월이 묵어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된 벗은 겨울이 되자 유자차를 보내주었다.

유자는 광주에서 살던 동생이 고흥에 내려가 유자 농사를 지어 겨울 소식을 전해준 것이었다.

"보내준 유자는 잘 받았다. 샛노란 색을 품은 유자향이 뚜껑을 열자마자 풍겨왔어. 올해는 남쪽의 햇살을 가득 담은 과일을 받으니 내 삶도 노란 햇살을 담아서 행복해지겠지. 유자를 깨끗이 씻어 송송 썰어 하얀 설탕에 비벼서 저장해 두었다가 노란 액이 유리병에 스며들 무렵에 보내주어 고맙다. 유자차를 먹고 올 감기도 이겨내겠지. 유자 향이 좋다. 너의 새하얀 손이 노란 유자를 잡아 송송 썰 때 햇살도 같이 부셔지는 너희집 마루가 생각난다. 유자차 맛이 좋다. 설탕이 적당히 들어가서인지 단맛도 잘 베였구나. 동생이 유자 농사를 짓는다고 고흥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걱정이 앞섰던 너의 모습이 기억난다. 삼 년도 되지 않아 유자 재배 정착을 한 동생이 대견하다며 칭찬을 했지. 유자차를 보내줄 때 싱싱한 유자도 같이 보내주어 유자 빛 색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내리는 날 따끈한 유자차를 마시며 겨울을 만끽하는 즐거움을 안겨주어서 고마워. 가슴 시린 날은 유자차로 마음을 달래며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며 시린 마음도 사라질거야.

세 편의 짧은 편지를 쓴다. 편지를 쓰며 고맙다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본다. 1년 동안 부지런한 사람들의 향기를 맡으니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편지를 쓰면서 겨울 동안 베란다에 귤, 김치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담긴 유자차를 먹을 생각을 하니 입가에 미소가 머문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성을 들인 수확의 과정을 이야기를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가 나에게 오는 사연을 알게 되니 더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겨울편지를 쓰며 눈이 내리는 겨울을 그리워한다. 남도에는 아직 눈 소식이 없다. 하얀 눈이 장독대 위에 나무 위에 소복이 쌓이면 또 하나의 겨울 이야기를 만들겠지. 십이월에 하얀 눈 위에 편지를 쓴다. 겨울편지는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 가슴을 따스하게 안아줄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응원이 필요한 시기

김 경 수
/장흥군 건설행정팀장

장흥군은 인구 3만 6천여 명의 작은 농어촌 지역이다.

현재 이곳도 여타 지방 소도시와 같이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늘고 있다.

이미 장흥군은 소멸 우려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계획도 줄을 잇고 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은 행정기관이 지역 발전의 전면에 나선다. 행정기관은 규모 있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계획 수립, 기본계획용역, 사업비 확보, 실시설계용역, 사업 시행까지 단계적 절차를 진행한다.

단계마다 법적 검토, 필요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민원 처리 등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 복잡 다양하며, 기간 또한 오래 걸린다.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감독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다 보니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절차가 복잡하고, 민원이 얽혀있는 업무를 기피 하는 현상이 공직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한다. 지역 발전,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이행, 마무리까지 분명한 공무원의 역할이 있다.

공무원의 마인드와 조직의 분위기가 지역 발전을 성패를 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어느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조직만 잘해보자고 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공직자를 향한 지역사회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 함께 해보자"하는 신뢰와 지지의 목소리가 공직자의 창의성과 도전의식을 깨울 수 있다.

겨울철 3대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박 기 원
/보성소방서 119안전센터장

연일 한파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난방용품의 사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난방용품은 우리에게 따스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에는 화재발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또한 많이 발생한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히터, 전기열선, 전기장판 등 3대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

첫째 전기히터의 경우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고, 히터 주위에는 가연물이 될 만한 것은 사전에 제거한 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특히, 커튼 등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이 없어야 안전하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항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둘째 전기 열선으로 인한 화재는 주로 동파 방지를 위해 스티로폼, 헌옷 등으로 감은 보온재 위에 전기 열선을 여러 번 겹쳐 사용할 때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발생한다.

당연히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제품 훼손 및 전원코드 이상 여부 확인, 열선을 옷이나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감지 않기, 열선에 충격을 주지 않기, 열선을 겹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전기장판 역시 KC마크가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사용 시 얇은 이불을 깔고 사용한다. 보관 시에는 동그랗게 말아서 보관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지양하는 등 기본적인 난방용품 사용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겨울철 3대 전기용품 안전 수칙을 지켜 화재 예방에 힘쓰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제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처남도프린테크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한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지국안내

충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정리……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3644-7272
나 주…010-3644-1309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3647-6161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4217-9480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587-2288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고 흥…010-7175-3500
광 산…010-7613-4320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